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역의 대응

- 충남의 내발적 발전과 농어업농어촌 -

박 진 도

I.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경제시스템의 변동

1. 신자유주의의 본질

- ◆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 배제 혹은 최소화 즉 경제자유화와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재정지출의 삭감과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주장
- ◆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시장주의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초국적 기업과 금융장본) 본위주의.
- ◆ 50, 60년대의 자본주의 황금기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일정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성립하였다면, 신자유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일방적 우위에 기초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기
- ◆ 세계화란 초국적 자본의 경제활동 무대를 세계로 확장하기는 위한 이데올로기. 동시에 달러와 영어를 앞세운 미국화 즉 미국식 문화(제도)의 세계화

2. 사회경제시스템의 변동: 1극3중 경제에서 2극 3중경제로

- ◆ **자본주의의 golden age기의 사회경제구조**
 - 1극 3중 경제: 국민경제 ⇄ 국제경제와 지역경제
 -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형태로 국제경제와 지역경제가 존재.
 - 성장한 국민경제의 힘으로 복지정책과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을 지원
- ◆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의 사회경제시스템**
 - 2극 3중 경제: 세계경제와 지역경제 ⇄ 국내경제
 - 자본의 글로벌화로 국민경제는 별 의미가 없어짐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와 지역경제를 매개하는 역할
 - 세계경제의 순환성과 지역경제의 순환성이 대극으로서 대립

3.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한국경제의 현실

- ◆ 2001~2010년 국내총생산(GDP) 2배, 수출은 3.1배, 일인당 국민소득은 2배로 됨
- ◆ 5대 재벌은 2008.4~2011.4 3년 사이에 계열사 51%, 자산 59% 증가
- ◆ 수입명품 매출액 : 최근 5년간 100~200% 신장



- 중산층 비율 : 75%(1990년)→ 67%(2010년) 하락
- 빈곤층 비율 : 7%(1990년)→12.5%(2010년) 증가
 - 2009년 절대빈곤층 비율 11.1%, 대도시 6.6%, 농어촌 지역 14.8%
- 소득의 양극화 : 5분위 소득 배율
 - 농촌 : 6.3배(1995년) → 9.4배(2008년)
 - 도시 : 4.4배 (1995년) → 5.3배(2008년)

II.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역의 위기

1. 세계화와 지역

- ◆ 세계화와 지구적 위기: 경제위기(장기불황과 금융위기), 자원위기(석유 및 식량위기), 환경위기(기후변화)의 융합
- ◆ 지역경제는 세계시장에 통합되면 될 수록 불안정성은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흥망성쇠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좌우됨
 - 세계화 특히 금융 세계화는 고도의 기업서비스 활동과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이른바 세계도시(예, 서울)를 필요로 하고, 세계도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로 존재하고,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일부 지역은 성장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배제됨
 -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도시나 지역 내에서도 진행됨.

2. 세계화와 지역의 위기

- ◆ 지역의 불균형 발전
- ◆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그러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의 붕괴
- ◆ 대형유통자본에 의한 자영업자의 몰락, 중소기업, 농촌경제의 쇠퇴
- ◆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위협: 주거, 보육, 교육, 보건의료, 환경, 문화 등에서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화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
- ◆ 신자유주의 분권화에 의해서 지역의 자립과 재정력 강화를 강요. 무분별한 기업유치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난개발로 인한 지역환경의 위기와 지방재정의 위기, 주민의 삶의 위기를 초래

3. 세계화와 지역의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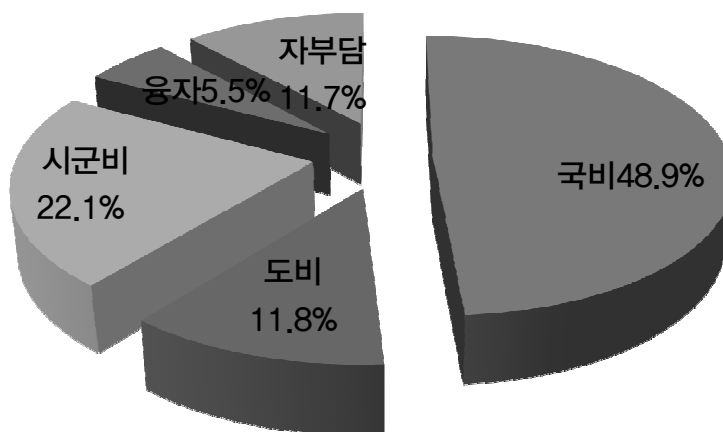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 지역내 불균형의 심화: 충남경제 사례

- 충남은 2000-2009년에 GRDP의 연평균증가율 9.1%로 전국 1위. 일인당 GRDP는 전국 2위.
- 충남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본사를 수도권에 둔 재벌계 대기업에 의한 수출산업.
- 그 결과 2008년 충남의 총요소소득 40조원 가운데 16조원이 역외로 유출됨.
- 충청남도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 아산, 서산, 당진시 북부권의 4개 시가 충남 GRDP의 68.1%를 차지
-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2007년 기준)은 아산시(0.8%), 천안시(1.6%), 계룡시(2.6%), 당진군(4.8%), 서산시(4.7%), 청양군(34.4%), 부여군(29.8%), 서천군(17.9%), 보령시(17.5%), 태안군(17.1%), 예산군(15.6%), 논산시(14.1%), 공주시(12.9%), 홍성군(10.9%), 금산군(9.35), 연기군(7.1%)

4. 지방분권의 실태

[2010년 충남의 농림수산 사업비]
1조556억원



Ⅲ.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의 강화

1. 지역(경제)의 재인식

- ◆ 지역은 주체적 존재
 - 지역은 주민들이 공동체적 일체감을 갖고 상호 연대해서 생활하는 공간
- ◆ 지역은 자립적 존재
 - 고용위기와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서 지역경제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위로서 인식됨.
 - 예를 들면, 로컬푸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 ◆ 지역은 대안적 존재
 - 신자유주의 글로벌 위기(경제, 자원, 환경위기의 융합)는 그 자체로는 해결책이 없음.
 - 지역에서의 실천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

2. 내발적 발전의 의의

◆ 내발적 발전이란

- 첫째, 내발적 발전은 지역개발의 목표를 단순한 경제적 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즉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통합적 발전(integrated development)을 추구. 예, 부탄의 GNH 정책
- 둘째, 내발적 발전은 발전의 동력을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구한다(driven from within).

내발적 발전은 지역내의 자원(자연적, 인적, 물적, 문화적, 환경적 자원)의 최대한 활용에 의한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보전)되도록 한다.

그렇지만 외부와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신내발적 발전)

- 셋째, 내발적 발전은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발전, 주민의 참여와 협동, 자치에 의한 발전을 중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참조: 부탄의 GNH정책

- **“Gross National Happiness is more important than Gross Domestic Product”.**
 - GNH Commission
- **4개의 전략**
 -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사회경제발전
 - 생태보전과 그 회복
 - 문화의 보전(문화적 정체성)과 창달
 - good governance
- **9 개의 영역(domain)과 72개 지표**
 -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시간활용(Time Use), 공동체 활성화(Community Vitality), 문화(Culture),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자연생태(Ecology), 생활 수준(Living Standard), 거버넌스(Governance)

3. 내발적 발전의 기본원리와 과제

- ◆ 지역의 내발적 발전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간의 순환과 공생의 원리에 기초한다
- ◆ 내발적 발전의 과제
 - 첫째, 순환과 공생의 자립적 지역경제를 만든다. 자립적 지역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의 활용과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경제이다.
 - 둘째, 분권과 자치에 의한 지역생활공동체를 만든다. 복지, 교육, 문화, 보건 의료, 고령자 및 장애인의 개호, 여성, 아동, 환경, 인권 등 제 영역의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실천활동, 주민자치운동과 공동학습
 - 셋째, 생태계 보전.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해서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살리고 환경을 재생 창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건

4. 지역력의 강화

◆ 지역력이란

-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나 기업을 비롯한 지역의 구성원이 스스로 그 문제의 소재를 인식하고 자율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주체와 협동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가치를 창조해 가는 힘"

◆ Rop Hopkins

- 먹거리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에서 자립적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재지역화(relocalization)의 힘

5.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 강화를 위한 정책

◆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발전

- 친환경적 농업의 확대와 로컬푸드 체계 구축
- 생활공간, 경제활동공간, 환경 및 문화 경관 공간으로서의 농어촌
- 3농 혁신

◆ 지역(기반)산업의 육성

- 지역특화 및 향토산업 육성
- 지역자원순환형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보호

- 전통시장활성화
- 대형유통자본의 규제

5.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 강화를 위한 정책

◆ 사회적 경제부문의 육성

- Defourny: 사회적 경제란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립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의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4개의 원칙에 따른 이해당사자경제(stakeholder economy)”
-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 다중적 연계협력 사업

- 충청권(충남,충북,대전) 광역경제권의 건설
- 충남의 기초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사업
- 수도권과 충남의 연계: 예, 광역LCD 클러스터

5.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 강화를 위한 정책

◆ 소프트 파워의 강화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

- 문화(교육,학문,예술,과학,기술 등 인간의 이성적 감성적 능력의 창조)를 토대로 한 소프트 파워
- 보편적 복지재정의 확충, 복지프로그램의 적극적 도입
- 노약자, 결혼이주자,여성,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호
- 도민들이 상호 신뢰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 문화의 생활화, 생활문화 창달, 전통문화의 재창조와 향유

5.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 강화를 위한 정책

◆ 지역리더의 양성 및 도민의 역량 강화

-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리더의 육성
- 지역밀착형 교육으로 지역에 남는 인재 양성
- 도민의 생애교육, 민주주의 훈련
- 도정 및 시 군정에 민간의 창의적 에너지 활용
- 귀농귀촌과 도농교류의 활성화

◆ 지방분권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 분권 요구
- 분권을 전제로 한 충남도와 시군간 역할분담 및 협력
- 시민사회와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 도민의 참여 유도 및 도민의 창조적 에너지 활용.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 등

IV. 충남의 농어업 · 농어촌의 발전전략과 과제

1. 농정의 비전(이념)을 국제경쟁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로 전환

- 농업 : 시장원리가 아닌 협동과 연대의 원리
- 식량시스템을 글로벌 푸드시스템에서
로컬 푸드시스템으로 전환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의 목표
 - 농업인(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 만들기

2. 농정 추진체계의 개편

- 중앙집권적 획일적 농정체계를 지방분권적 자율적 농정체계로 개편
- 농업농촌의 발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함

23

3. 충남 농정의 기본과제

- 삶터(생활공간)
- 일터(경제활동공간)
- 쉼터(문화, 경관 및 환경 공간)
- 농촌지역리더 육성

24

1) 삶터: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어촌 서비스 기준도입 및 시행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순환하고 공생하는 지역

2) 일터: 경제활동의 다각화(농업의 발전과 6차 산업화)

- 친환경 농업의 발전
- 로컬푸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 6차 산업화

3) 쉼터: 농촌 문화, 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회복

4) 주체 형성: 농촌 지역리더 양성

25

맺음말

?

26

국민 전체가 응원하는 농업·농촌

- 일본의 2010년 '신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농정의 기본방침으로 '국민 전체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사회의 창조'를 표방, 예산 지원
-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 :
'Food Action Nippon'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운동 :
'all right 일본'과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 한국 농어업·농어촌의
“희망버스” 는?

27

감사합니다.